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개최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5. 6.27.(금) 10: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주재하였다.

* 참석부처 및 기관: 과기부, 법무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국조실, 금융위, 권익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 방향을 논의하였다.

* 근거: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 (안건)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 제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직무대행 1차관은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만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IMD가 지적한 우리경제의 취약 부문을 면밀히 점검·분석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정원 (044-215-2810)
		담당자	사무관	최규철 (kyuchul84@korea.kr)

[인사말씀]

□ 지금부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민간 전문가 및 정부측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시사점]

□ 지난주에 발표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번째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별 순위가 하락하였습니다.

□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특정 기관의 지표만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 IMD가 지적한 우리 경제의 취약 부분을 면밀히 점검·분석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관리 방안]

□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산업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히, 디지털 시대 전환과 기술 급변 시대에
혁신기업이 출현하기 위해
넓고 분절된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각 부처는 행정 서비스 제공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입장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되,
민원처리가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각 부처는 신경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특히, AI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관광수입, 외국인 직접투자 등 취약항목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콘텐츠의 국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K-컬처의 세계 진출을 뒷받침하여
이를 국가 홍보 전략과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과학·기술 인프라에 대해서도 기업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인프라의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 핵심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순위가 상승한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등 우수한 항목도
지속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앞으로 이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향후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범부처 공동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